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비공식 낙인, 비행의 관계

장 은 비 최 현 주 하 규 영 박 은 혜 이 상 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부모-자녀 관계, 비공식 낙인, 청소년 비행의 종단적 상호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중2패널 중 고등학생 자료인 3, 4, 5차년도 자료에서 비행을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녀 고등학생 총 1,084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자녀 관계와 비행은 부적 상관, 비공식 낙인과 비행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부모 애착이 높고 부모 감독도 많이 받는 반면, 비행은 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자녀 관계, 비공식 낙인, 비행 간 관계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경우 부모-자녀 관계와 비공식 낙인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학생은 비행이 부모-자녀 관계와 비공식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 비행 발생 경로에 있어 성별 차를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성과 비행 예방, 개입하는 데 필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주요어 : 부모-자녀 관계, 비공식 낙인, 청소년 비행, 성차, 자기회귀 교차지연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상민,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Tel : 02-3290-2306, E-mail : leesang@korea.ac.kr

청소년 비행은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장애로서, 우울, 불안, 자살 등의 정신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장애와 더불어 위기 청소년을 정의하는 데 핵심이 된다(김형수, 최한나, 2009; 이봉주, 김동일, 정익중, 유순덕, 2008). 청소년 비행은 양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점점 흉포화, 집단화되고 있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김혜래, 이해원, 2007; 이해은, 최정아, 2008). 청소년 범죄는 2011년 83,068건으로 5년 전인 2007년 88,104건보다 다소 줄어 들었으나(청소년백서, 2012), 2009년 소년법 개정으로 인해 소년범의 범위가 18세로 조정된 점을 감안해 보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안지선, 김정남, 2013). 특히 전과가 있는 청소년 범죄의 비율이 전체 청소년 범죄의 40.5%를 차지하는데, 이는 비행 청소년으로 낙인된 경우 스스로 비행자라는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어 보다 쉽게 이차적 비행을 범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Lemert, 1967). 한편, 최근 나타나는 청소년 비행의 또 다른 특징으로 남학생의 비행은 감소하는 경향인데 반해 여학생의 비행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신혜섭, 2005). 여학생의 비행은 1970년에 10% 미만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2008년에는 약 20%까지 증가했다(법무연수원, 2010). 그동안은 남학생의 비행이 청소년 비행의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학생의 비행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으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청소년 비행의 성차에 대해 보다 세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에서 비행에 대한 경험과 인식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해 볼 때,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기능하는지 연구하는 것은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이론의 확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청소년 비행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으로는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 Hirshci, 1969)과 낙인이론을 들 수 있다(이수진, 2004). 사회통제이론에서는 사회적 유대가 비행을 통제한다는 주장하며 기존 혹은 미래의 관계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행 행동을 덜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다양한 사회적 유대 가운데에서도 특히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유대관계라는 점에서 중요한데, 유아기에 부모-자녀 간 애착 관계가 적절하게 형성되지 않은 경우, 개인은 타인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갖는 것을 어려워 할 수 있고, 나아가 공격적이고 일탈적인 행위를 하게 될 수 있다(Bowlby, 1944, 1973). 한편, 낙인이론에서는 주변사람들에 의한 거부나 오명과 같은 비공식 낙인이 비행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낙인에 대한 두려움은 비행을 통제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자녀관계나 비공식 낙인이 비행의 원인인지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박현수, 박성훈, 정혜원, 2009; Kerr, Stattin, & Burk, 2010; Laird, Pettit, Bates, & Dodge, 2003; Ray & Downs, 1986; Stewart, Simons, Conger, & Scaramella, 2002; Thomas & Bishop, 1984).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부모-자녀관계, 비공식 낙인, 비행의 인과관계에 대한 결과가 불일치하는 이유에 초점을 두고 이 세 변인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자녀관계와 비공식낙인이 비행에 선행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이

유는 첫째, 방법론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처음부터 이론적 모형에 근거하여 부모-자녀관계나 비공식 낙인이 비행의 원인이라고 상정하는 경우 선후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횡단자료를 활용해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단자료를 이용해 부모-자녀관계와 비공식 낙인, 비행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자녀관계나 비공식 낙인과 비행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이 존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남녀의 비행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부모-자녀관계 및 비공식 낙인이 청소년 비행과 갖는 관계를 성별에 따라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자녀관계와 비행, 그리고 비공식 낙인과 비행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기광도, 2010; 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신경수, 2004; 이성식, 1995; Griffin, Borvin, Scheier, Diaz, & Miller, 2000; Hindelang, Hirschi, & Weiss, 1979; Miller, Malone, & Dodge, 2010; Svensson, 2003). 따라서 이 세 변인 간 관계의 조절변인으로서 성차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을 통해 부모-자녀관계, 비공식 낙인, 그리고 비행에 대한 인과관계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성별 분석을 통해 이러한 관계에 있어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여학생 비행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고, 성별에 따라 청소년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자녀관계, 비공식 낙인, 청소년 비행의 관계

최근까지도 부모-자녀관계와 비행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경, 2010; 김효수, 김성천, 유서구, 2010; Coley, Votruba-Drzal, & Schindler, 2008; Hoeve, Stams, Van der Put, Dubas, Van der Laan, & Gerris, 2012).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자료를 사용해 부모애착, 비공식 낙인, 청소년 비행의 관계를 연구한 김효수 등(2010)에 따르면 부모애착은 비행에 선행하며, 비공식 낙인은 부모애착과 비행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의 종단자료(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를 활용해 양육태도(Parenting)와 비행의 선후관계를 분석한 Martha(2012)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 애착(Parental Attachment)과 비행 간의 관계는 양방적이었다. 즉, 부모-자녀관계가 좋지 않으면 비행이 증가하고 비행을 많이 저지르면 부모-자녀관계가 나빠지는 상호적 관계(Reciprocal relationship)라는 것이다. 부모-자녀관계를 애착에 국한하지 않고 감독(Monitoring or Supervision)으로 확대해서 보는 연구들에서 역시 부모-자녀관계와 비행의 관계를 상호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우세하다(Kerr et al., 2010; Laird et al., 2003; Stewart et al., 2002). 이와 같이 불일치하는 선행연구들은 부모-자녀관계와 비행 간의 선후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비공식 낙인과 청소년 비행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역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강세현, 1995; 김경준, 2010; 김효수 등, 2010; 박현수 등, 2009; 이성식, 1995;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 많은 연구들이 비공식 낙인

이 비행에 선행한다는 낙인이론의 가정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고,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Akers & Sellers, 2004; Matsueda, 1992; Triplett & Jarjoura, 1994). 그러나 이 가운데 박현수 등(2009)의 연구에서는 비공식 낙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비행이 비공식 낙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수 등(2009)은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자기회귀 교차지연 분석방법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반면, 다른 연구들은 횡단자료로 분석을 하거나 종단자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론적 틀에 따라 비공식 낙인이 비행에 선행하는 것을 상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의 불일치는 연구모형이나 통계적 분석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으며, 보다 정교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부모-자녀관계와 비공식 낙인 간 관계를 살펴보면, 비공식 낙인이란 자아의 반사된 평가로서 주위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내적 반응을 의미하며(이성식, 2007; 최수형, 2008), 이러한 비공식 낙인은 사회적 유대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효수 등, 2010; 이성식, 2007). 즉,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사회적 유대는 비공식 낙인의 원인이 되며(Aultman & Wellford, 1979; Heimer & Matsueda, 1994), 비공식 낙인이 부모-자녀관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Liska & Messner, 1999; Stewart et al., 2002).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는 사회통제이론과 낙인이론의 통합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와 비공식 낙인 중 어느 요인이 선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자녀관

계와 비공식 낙인은 상호작용하면서 비행과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와 비공식 낙인이 서로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부모-자녀관계와 비공식 낙인 간의 인과관계보다는 이 두 변인과 비행 간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두어 연구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청소년 비행에서의 성차

청소년 비행 연구에서 성차는 중요한 주제로 다루지고 있다(기광도, 2010; 신현숙 등, 2004; 이성식, 1995; Griffin et al., 2000; Miller et al., 2010; Svensson, 2003). 비행 발생률에 있어 여성보다는 남성이 확연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기광도, 2010). 이러한 비행에서의 성차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설명이 시도되었다.

사회적 유대(Social bond)가 비행을 감소시킨다는 사회통제이론에서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유대, 특히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하고 관습적인 활동이나 가치를 보다 잘 수용하기 때문에 비행 발생률이 낮다고 해석한다(Agnew, 2009; Booth, Farrell, & Varano, 2008; Jensen & Eve, 1976).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는 연구 결과들도 발표되었다(Hoeve et al., 2012). Del Giudice(2009)에 따르면 애착 관계의 질 자체에는 성차가 존재하지 않으나, 남성은 회피 애착에 적응하는 반면 여성은 애착에 있어 불안-양가 패턴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남성은 보다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성향, 외현화된 문제 행동을 드러낼 수 있고, 여성은 불안, 우울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 행동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혼돈 애착에 대한 메타연구를 실시한

Bakermans Kranenburg, Van IJzendoorn과 Juffer (2005)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애착 패턴에 있어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들을 고려해볼 때, 애착과 비행의 관계에 있어 성차의 존재 여부는 아직도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부모의 감독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비행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 (Svensson, 2003)도 있어, 애착과 감독이 함께 이루어지는 부모-자녀관계가 성별에 따라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비행의 예측변인으로서의 비공식 낙인과 관련하여서도 성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박진희, 김현주, 2012; Schwarts & Steffensmeier, 2012). Morris(1965)에 따르면 여성은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비행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남성의 경우 오히려 자부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여성은 직접적인 처벌이나 비난보다는 평판이나 체면 등에 의해 비행 통제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평판이론(Reputation Enhancement Theory)을 통해 여학생의 비행 행동을 분석한 Lee와 Smith-Adcock(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한편,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교적 사회적 권력이 약한 집단이므로, 같은 비행 행위를 했더라도 남성에 비해 더욱 강한 낙인을 받게 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여성의 비행이 남성의 비행에 비해 더욱 엄격한 처벌과 낙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호, 김은경, 1995; Bishop & Frazier, 1992; Jang & Thornberry, 1998).

이와 관련하여 최수형(2008)은 비행의 결과로서의 비공식 낙인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적 낙인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

떻게 다른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비행경험으로 인해 비공식적 낙인을 더 많이 경험하며 비공식 낙인을 경험할수록 더 많이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비행경험으로 인해 비공식적 낙인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주장과 여학생에게서 비공식 낙인을 경험할수록 더 많이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은 모형의 일부 결과에서만 지지되었다. 둘째, 방법론적으로 이 연구는 남녀 집단을 다중표본으로 상정한 다음, 8개의 경로 중 4개의 경로에서 회귀계수의 성별 차이의 통계적 유의하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남녀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보다 통계적으로 엄격한 방법인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에서와 같이 등가제약을 가한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 간 적합도 비교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녀의 차이를 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임진섭, 2010; 홍세희, 2008).

이와 같이 비공식 낙인과 비행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가설은 오랜 기간 동안 관심 주제로 다루어졌으나, 기본적으로 비공식 낙인과 비행의 선후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별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비공식 낙인과 비행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보다 정밀한(Rigorous) 연구방법을 사용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본 연구는 부모-자녀관계 및 비공식 낙인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되는 인과모형(Causal Model)과 부모-자녀관계 및 비공식 낙인이 청소년 비행의 결과가 되는 역 인과모형(Reversed Causal Model)을 설정하고, 각 모형에서 성별에 따른 적합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부모-자녀관계, 비공식 낙인, 청소년 비행의 종단적 상호관계에 있어 성차가 존재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2패널 3,449명 중 3, 4, 5차년도 조사에서 비행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녀 고등학생 총 1,084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2패널 데이터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6년에 걸쳐 수집된 종단자료로, 1차년도(2003년) 조사대상은 2003년 4월 1일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12개 특별시·광역시·도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 중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에 의해 표본으로 추출된 3,697명 중 부모의 동의를 받은 3,449명이었다. 1차년도(2003년) 자료수집 방법은 학교방문을 통한 집단면접조사로 학급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6차년도(2004~2008년) 조사는 1차년도 설문에 응답한 학생을 개인별로 추적하여 개별면접조사를 함으로써 진행되었다. 또한 1차년도 이후 상실된 표본에 대해서는 표본을 대체하는 방법이 아닌 횡단적·종단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표

본의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표본유율은 2차년도(2004년) 92.4%(3,188명), 3차년도(2005년) 90.6%(3,125명), 4차년도(2006년) 90.5%(3,121명), 5차년도(2007년) 86.0%(2,967명), 6차년도(2008년) 82.1%(2,833명)로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경상, 안선영, 박수민, 유동훈, 반호준, 200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2패널 데이터 중 3, 4, 5차년도 조사에서 비행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녀 고등학생 총 1,084명의 데이터만 사용하였다. 고등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정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1차년도와 2~6차년도 자료를 수집할 때 사용된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조사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비행과 비공식 낙인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은 집단면접조사와 개별면접조사 중 어떤 방식으로 조사되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연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1~6차년도 비행변인의 결측치(Missing Value)를 고려해 보았을 때, 중2패널 조사대상의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시점인 3, 4, 5차년도 데이터가 연구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개별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인 3, 4, 5차년도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즉, 3차년도 자료가 실제 분석의 T1시점(고1), 4차년도 자료가 T2시점(고2), 5차년도 자료가 T3시점(고3)의 자료가 된다.

측정도구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애착의 6문항과 부모 감독의 4문항을 포함하여 총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부모애착의 구체적 문항은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 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부모애착 척도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고자 실시한 문항 간 신뢰도검사 결과 Cronbach's α 값은 3차년도(T1) .876, 4차년도(T2) .893, 5차년도(T3) .899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부모감독의 구체적 문항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로, 역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부모 감독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3차년도(T1) .858, 4차년도(T2) .852, 5차년도(T3) .875로 나타났다.

비공식 낙인

비공식 낙인은 자기낙인의 2문항과 타인낙

인의 2문항을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 문항은 ‘나는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주의 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와 같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비공식 낙인 중 자기낙인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3차년도(T1) .833, 4차년도(T2) .862, 5차년도(T3) .831로 나타났으며, 타인낙인 척도의 Cronbach's α 값 역시 3차년도(T1) .925, 4차년도(T2) .925, 5차년도(T3) .922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청소년 비행

청소년 비행은 총 14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구체적 문항은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경험’, ‘성관계 경험’,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빼앗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원조 교제’,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남을 협박하기’,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그리고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이다. 각 문항은 해당 비행경험의 유무(‘전혀 없다(1)’, ‘있다(2)’)와 비행경험이 있는 경우,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그러한 경험을 했는지 그 횟수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경험의 유무에 대해 응답자가 ‘전혀 없다(1)’와 ‘있다(2)’로 답한 것을 ‘전혀 없다(0)’, ‘있다(1)’로 재코딩하였다. 그리고 비행경험이 있는 경우 1년 간 경험한 횟수를 합산하여 이를 비행척도로 사용하였다. 즉, 응답자가 획득할 수 있는 점수는 최저 0 점에서 최고 14점까지이며 본 연구가 비행척

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최종연구대상은 비행척도에서 1점 이상을 얻은 응답자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각 시점에서 비행척도의 점수가 1점 미만인 응답자가 전체의 약 60%로 원자료가 정적 편포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연로그변환을 적용했다.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비행과 부모-자녀 관계, 비공식 낙인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종단관계에서 남학생 및 여학생 간의 성차를 살펴보았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종단적으로 검증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특정 시점(t 시점)의 값이 이전 시점($t-1$ 시점)의 값에 의해 설명되는 자기회귀 모형(Autoregressive Model)과 함께 이를 다변량모델로 확장시켜 변수 간의 상호영향력, 즉 교차지연효과(Cross-Lagged Model)까지 추정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서미정, 김홍석, 2013; 홍

세희, 2008;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이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비행청소년의 비행과 부모-자녀 관계, 비공식 낙인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예측하는데 있어 유용한 방법으로, 상호 변인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검증하면서 동시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임진섭, 2010; 홍세희 외, 2007).

본 연구에서 검증할 비행청소년의 비행과 부모-자녀 관계, 비공식 낙인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경로는 그림 1(인과모형)과 그림 2(역 인과모형)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과 같이 연구에서는 비행은 측정변수, 부모-자녀관계와 비공식낙인은 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애착, 부모감독을 측정변수로, 비공식 낙인은 자기낙인과 타인낙인을 측정변수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모형과 역 인과모형을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성별 간 모형 적합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인과모형과 역 인과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χ^2 검증과 함께 RMSEA, TLI, CFI 지수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지수들은 χ^2 값이 사례 수에 따라 민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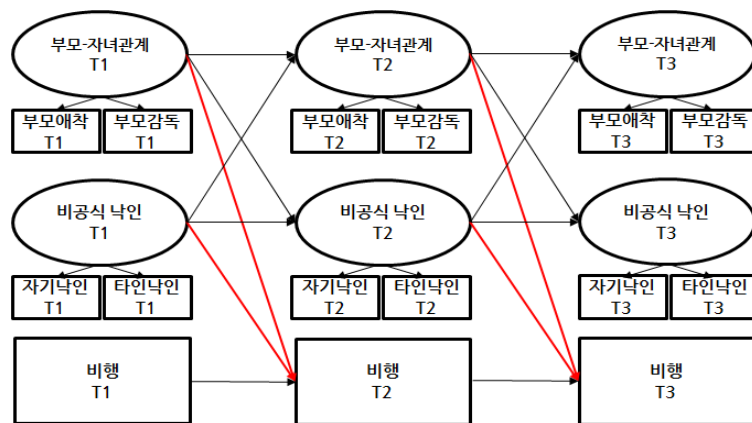


그림 1. 부모-자녀 관계와 비공식 낙인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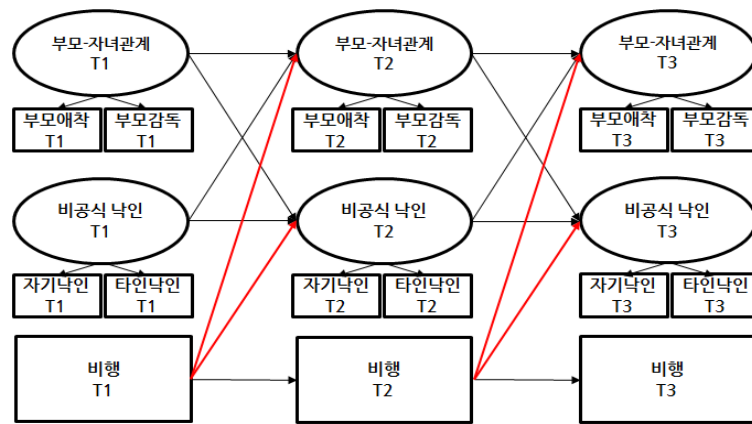


그림 2. 비행이 부모-자녀 관계와 비공식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역 인과모형

점을 감안하였을 때 사례 수에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데 유용하며, 특히 CFI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다른 지수들, 즉 RMSEA, TLI 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RMSEA는 값이 낮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반대로 CFI와 TLI는 값이 높을수록 좋다. CFI와 TLI의 값은 대략 0.9 이상이면 그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 자주 쓰이는 결측 처리 방법에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IML: 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2 패널 중 비행청소년 데이터는 6차에 이르는 패널 추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약들과 비행척도의 정적 편포 등으로 인해 다수의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다. 지나친 결측치로 인한 연구대상의 감소는 통계적 검증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편의(Bias)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Ibrahim, Lipsitz, & Chen,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측치의 발생이 MCAR (Missing completely at random) 또는 MAR (Missing at random)이라는 가정 하에 EM 알고리즘방식

을 사용하여 결측치를 처리하였다. EM 알고리즘 방식은 모형에 기반을 두고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법(Model-implied Method)으로서 불완전한 데이터의 평균과 공분산 값을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통해 추정한다. EM분석은 결측치가 회귀방정식에 의해 기댓값으로 대체되는 Expectation 단계와 대체된 전체 데이터에 기반하여 최대우도 값을 추정하는 Maximization 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값으로 수렴될 때까지 이 두 단계를 반복하게 된다(Kline, 2011). 마지막으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는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용 프로그램인 AMOS 18.0을 사용하였고, 그 외 일반적인 통계 검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부모-자녀관계와 비공식 낙인, 비행의 모형들을 검증하기 위해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남, 여 각각의 측정변수들의 상관과 기술통계량, t-test값을 산출하여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T1, T2의 비행과 각각 T2, T3의 부모-자녀관계가 약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220 \sim -.092$, $p<.01$), T1, T2의 비행과 각각 T2, T3의 비공식 낙인이 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242 \sim .385$, $p<.01$). 이와 마찬가지로, 여학생의 경우에도 T1, T2의 부모-자녀관계와 T2, T3의 비행이 약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208 \sim -.167$, $p<.01$), T1, T2의 비공식 낙인이 T2, T3의 비행과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r=.368 \sim .432$, $p<.01$).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은 T2 부모애착과 T1, T2 비공식 낙인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에서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평균이 높았다. 한편, T3시점의 비공식 낙인에서는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의 평균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비행의 경우 모든 시점에서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의 평균보다 높았다. 이처럼 여러 변수에 걸쳐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가 드러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남, 여 표본을

표 1. 성별에 따른 측정변수 간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	.616**	.689**	.427**	.660**	.439**	-.193**	-.196**	-.223**	-.256**	-.226**	-.263**	-.187**	-.198**	-.243**
2	.436**	-	.445**	.571**	.439**	.591**	-.080	-.112*	-.170**	-.222**	-.193**	-.210**	-.164**	-.204**	-.233**
3	.638**	.275**	-	.571**	.695**	.486**	-.142**	-.147**	-.179**	-.184**	-.177**	-.178**	-.148**	-.136**	-.208**
4	.290**	.451**	.471**	-	.409**	.618**	-.090*	-.118**	-.095*	-.145**	-.137**	-.154**	-.149**	-.146**	-.167**
5	.546**	.266**	.622**	.333**	-	.649**	-.145**	-.168**	-.189**	-.192**	-.280**	-.294**	-.135**	-.170**	-.259**
6	.274**	.384**	.329**	.491**	.535**	-	-.101*	-.120**	-.118**	-.160**	-.262**	-.273**	-.122**	-.155**	-.212**
7	-.140**	-.078	-.188**	-.095*	-.129**	-.054	-	.840**	.518**	.546**	.433**	.420**	.506**	.428**	.373**
8	-.213**	-.088*	-.172**	-.042	-.106*	-.058	.749**	-	.474**	.573**	.473**	.507**	.490**	.418**	.384**
9	-.170**	-.090*	-.159**	-.109**	-.150**	-.084*	.467**	.442**	-	.811**	.518**	.458**	.353**	.356**	.368**
10	-.165**	-.075	-.193**	-.088*	-.108**	-.043	.500**	.549**	.698**	-	.503**	.532**	.424**	.430**	.432**
11	-.153**	-.162**	-.195**	-.128**	-.205**	-.101*	.487**	.418**	.487**	.451**	-	.802**	.342**	.301**	.408**
12	-.139**	-.129**	-.177**	-.078	-.181**	-.095*	.398**	.454**	.403**	.464**	.748**	-	.398**	.377**	.466**
13	-.202**	-.105*	-.220**	-.092*	-.178**	-.106*	.401**	.397**	.242**	.385**	.369**	.418**	-	.723**	.686**
14	-.141**	-.057	-.175**	-.094*	-.177**	-.114**	.302**	.310**	.300**	.399**	.282**	.371**	.605**	-	.753**
15	-.192**	-.081	-.222**	-.121**	-.218**	-.148**	.275**	.270**	.234**	.296**	.282**	.347**	.530**	.639**	-

주. 대각선 아래는 남학생, 대각선 위는 여학생의 상관계수임

1 = 부모애착 1, 2 = 부모감독 1, 3 = 부모애착 2, 4 = 부모감독 2, 5 = 부모애착 3, 6 = 부모감독 3

7 = 자기낙인 1, 8 = 타인낙인 1, 9 = 자기낙인 2, 10 = 타인낙인 2, 11 = 자기낙인 3, 12 = 타인낙인 3

13 = 비행 1, 14 = 비행 2, 15 = 비행 3

* $p<.05$, ** $p<.01$

표 2. 성별에 따른 연구 변인 기술통계 및 t-test결과

변인	남학생 (N=577)				여학생 (N=505)				t
	M	SD	왜도	첨도	M	SD	왜도	첨도	
부모애착1	3.26	.64	-.063	.113	3.40	.74	-.241	.027	-3.090**
부모감독1	3.15	.76	-.131	.184	3.32	.75	-.144	.362	-3.797***
부모애착2	3.34	.71	-.175	.518	3.41	.79	-.399	.106	-1.472
부모감독2	3.26	.74	-.117	.195	3.36	.76	-.386	.825	-2.168*
부모애착3	3.36	.73	-.357	.815	3.48	.75	-.257	.084	-2.644**
부모감독3	3.25	.76	-.331	.395	3.40	.79	-.392	.747	-3.139**
자기낙인1	2.11	.74	.665	.949	2.09	.73	.845	1.670	.479
타인낙인1	1.96	.77	.791	.903	1.95	.77	.920	1.229	.325
자기낙인2	2.10	.79	.713	.988	2.05	.75	.733	1.209	1.168
타인낙인2	2.01	.85	.941	1.093	1.97	.83	.910	1.020	.795
자기낙인3	2.04	.73	.488	.022	1.95	.69	.532	.177	1.999*
타인낙인3	1.95	.84	.819	.373	1.83	.71	.728	.367	2.595*
비행1	.44	.59	.188	1.166	.34	.62	.080	2.281	2.521*
비행2	.46	.58	.676	.044	.34	.55	.658	.560	3.451**
비행3	.51	.55	.633	-.113	.33	.48	.696	.147	5.799***

* $p < .05$, ** $p < .01$, *** $p < .001$

따로 구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첨도와 왜도 수치를 살펴보았다. 구조방정식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의 사용을 위해서는 다변량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에서 왜도는 2, 첨도는 7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정규성 가정이 충족된 것이라 여겨 최대우도 추정법을 사용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부모-자녀관계, 비공식 낙인, 청소년 비행의 인과관계 검증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인과모형과 역 인과모형, 두 개의 경쟁 구조 모형들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인과모형과 역 인과모형은 모두 적합도면에서 유의하였다(RMSEA $\leq$ 0.07, TLI, CFI $\geq$ 0.95). 그러나 자유도가 같을 경우 작은 값일수록 더욱 좋은 모형으로 규정하는 χ^2 값을 근거로 하여 두 모형을 비교해보았을 때, 남성 집단에서는 역 인과모형의 χ^2 값이 173.15로 인과모형의 χ^2 값 190.476보다 작아 더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여성 집단에서는 인과모형의 χ^2 값이 182.235로 역 인과모형의 χ^2 값 197.093보다 더 작아 적합도면에서 더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와 비공식 낙인, 비행 간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인과모형은 여학생에게서 더 적합한 것

표 3. 인과모형, 역 인과모형 적합도

성별	모형	χ^2	df	RMSEA	TLI	CFI
남	인과모형	190.476	59	0.062	0.942	0.967
	역 인과모형	173.150	59	0.058	0.950	0.972
여	인과모형	182.235	59	0.064	0.957	0.976
	역 인과모형	197.093	59	0.068	0.952	0.973

표 4. 모형별 표준화된 경로계수

모형	경로	남	여
인과모형	부모자녀관계1 → 비행2	-0.011	-0.066*
	부모자녀관계2 → 비행3	-0.092**	-0.087**
	비공식낙인1 → 비행2	0.107*	0.095*
	비공식낙인2 → 비행3	0.018	0.090**
	부모자녀관계1 → 비공식낙인2	-0.062	-0.150***
	부모자녀관계2 → 비공식낙인3	-0.073	-0.094*
	비공식낙인1 → 부모자녀관계2	-0.086*	-0.006
	비공식낙인2 → 부모자녀관계3	0.019	-0.026
	비행1 → 비행2	0.549***	0.654***
	비행2 → 비행3	0.491***	0.515***
역 인과모형	비행1 → 부모자녀관계2	-0.063	-0.014
	비행2 → 부모자녀관계3	-0.096**	-0.025
	비행1 → 비공식낙인2	0.116**	0.128**
	비행2 → 비공식낙인3	0.178***	0.121**
	부모자녀관계1 → 비공식낙인2	-0.044	-0.127**
	부모자녀관계2 → 비공식낙인3	-0.056	-0.083*
	비공식낙인1 → 부모자녀관계2	-0.053	-0.004
	비공식낙인2 → 부모자녀관계3	0.052	-0.005
	비행1 → 비행2	0.610***	0.722***
	비행2 → 비행3	0.504***	0.538***

* $p < .05$, ** $p < .01$, *** $p < .001$

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1시점 부모-자녀관계가 T2시점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066, T2시점에서 T3시점으로의 영향은 -.087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의

경우 부모-자녀관계가 이후 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좋으면 비행 행동은 줄어들고, 부모-자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비행 행동은 늘어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비공식 낙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T1시점에서 T2시점으로 갈 때

에는 .095, T2시점에서 T3시점으로 갈 때에는 .09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경우 비공식 낙인을 경험하는 것이 이후 비행에 영향을 주며, 비공식 낙인을 많이 경험할수록 비행 행동도 더 많이 저지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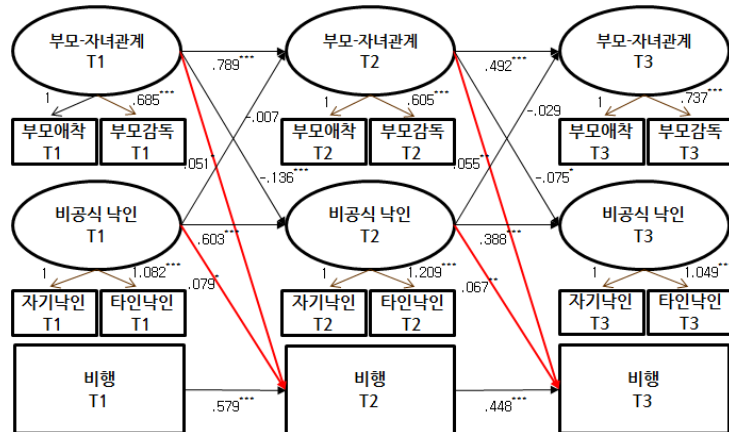


그림 3. 여자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비공식 낙인, 비행 모형

주. 경로계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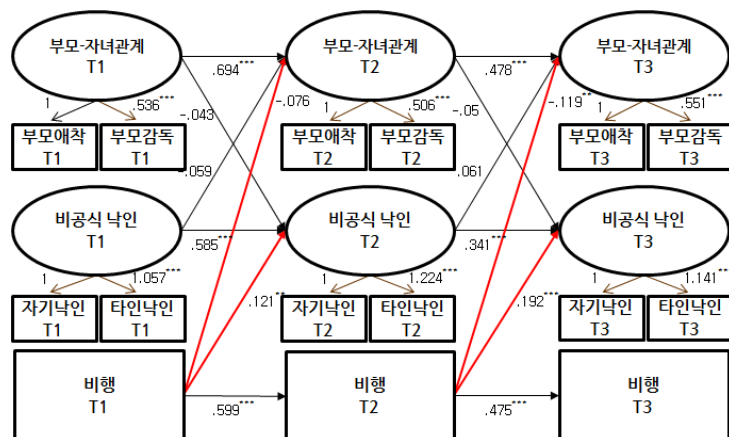


그림 4. 남자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비공식 낙인, 비행 모형

주. 경로계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임.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역 인과모형은 남학생에게서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행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T1 시점에서 T2시점에 이를 때에는 -.063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T2시점에서 T3시점에 이를 때에는 -.096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비행이 부모-자녀관계를 악화시키는 데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비행과 비공식 낙인 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T1시점과 T2시점 사이에서는 .116, T2시점과 T3시점의 사이에서는 .178로 모두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이후 비공식 낙인을 경험하게 하는 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모델 적합도와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고려했을 때, 비공식낙인과 비행, 부모-자녀관계 사이의 인과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여학생의 경우, 부모-자녀관계와 비공식 낙인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하고, 남학생의 경우는 비행이 부모-자녀관계와 비공식 낙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역 인과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모형은 그림 3, 그림 4와 같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2패널 3~5차년도 자료를 활용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관계, 비공식 낙인, 청소년 비행의 중단적 상호관계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자기회귀 교차지연모

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자녀관계와 비공식 낙인이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인과모형은 여학생에게, 비행이 부모-자녀 관계와 비공식 낙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역 인과모형은 남학생에게 더 잘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관계와 비행 행동 정도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부모 애착이 높고 부모 감독도 더 많이 받는 반면, 비행 행동은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하므로 상대적으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낮은 선행연구들(Agnew, 2009; Booth et al., 2008; Jensen & Eve, 1976)의 결과와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김준호와 김은경(1995)은 일반적으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비행성향이 높으며, 남학생들은 친구와 학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여학생들은 친구와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남학생들은 좋은 가정환경이어도 친구나 학교 등의 영향을 받아 비행을 저지를 수 있지만 여학생들은 가정환경이 좋으면 그만큼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성역할 사회화과정에서 여학생은 '여성다움'을 갖도록 기대되기 때문에 비행에 대한 통제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비행 발생 경로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가 존재했다. 구체적으로, 여학생의 비행은 부모-자녀 관계와 비공식낙인의 영향을 받는 반면, 남학생은 비행이 오히려 부모-자녀 관계와 비공식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여학생 집단에서 나타난 부

모애착과 비공식낙인이 비행에 선행한다는 결과는 김효수 등(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경남(2002)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여학생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충동 통제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비행 감소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집안의 분위기는 여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며, 집안의 분위기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감독, 애착과 관련이 있다(김준호, 김은경, 1995). 본 연구 결과 역시 부모-자녀 관계가 여학생의 비행 발생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적절한 수준의 부모 지도와 감독은 여학생의 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부모-자녀 관계가 개선되면 여학생들의 비행행동도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여학생들은 초기 청소년기에 비공식 낙인을 경험하는 것이 이후 비행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비공식낙인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비행행동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공식 낙인이 비행의 원인이 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Akers & Sellers, 2004; Matsueda, 1992; Triplett & Jarjoura, 1994)들과 일치한다. 최수형(2008)은 비행행동에 있어서의 성별 차를 ‘여성다운’ 여성상과 ‘남성다운’ 남성상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설명하였다. 즉, 여학생의 비행은 여성답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져 동일한 남학생의 비행보다 더 큰 비난을 받게 되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학생은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차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즉, 여성은 직접적인 처벌이나 비난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지와 관련된 비공식낙인만으로도 비행 행동을 통제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 역시 여학생의 비행에 있어 개인이 지각한 주변 사

람들의 평가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남학생은 비행이 부모-자녀 관계와 비공식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비행은 부모-자녀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후 비공식 낙인을 경험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남학생의 비행이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LaGrange와 White(1985)는 청소년 시기를 초기(12-14세), 중기(15-17세), 후기(18세)로 구분하여 시기에 따라 남학생의 비행에 가정, 학교, 친구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고1 시점의 비행은 고2 시점의 부모-자녀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고2 시점의 비행이 고3 시점의 부모-자녀 관계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2에서 후기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고3 시기가 이전 시기와는 다른 특징을 지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시기 남학생의 비행은 부모가 통제하기 어려워지며 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감독도 줄어들 수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와 비행간 관계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과적 관계가 상반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자녀관계와 비행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몇몇 연구들(Kerr et al., 2010; Laird et al., 2003; Stewart et al., 2002)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부모-자녀관계와 비행의 관계가 상호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와 비행간 관계는 일방향적 이라기보다 양방향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남학생에게 나타난 비행이 비공식 낙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비공식 낙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비행이 비공식 낙인에 미

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박현수 등(2009)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남학생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비행을 한번 저지르게 되면 자기 스스로와 타인으로부터의 비공식 낙인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해낸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실제적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비행을 이해하고 개입함에 있어 남녀에게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여학생들은 부모-자녀관계가 비행의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학생들의 경우, 초기 비행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태도가 이후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학생의 비행에 대한 비공식적 낙인을 감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와 교사는 한 두 번의 비행행동으로 청소년을 성급하게 낙인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성차별적인 태도가 여학생의 비행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이해하고, 비행을 저질렀을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더 큰 비난을 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공식적 낙인이 청소년, 특히 여학생의 비행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이 비행을 저질렀을 때, 스스로를 문제아라고 낙인찍지 않고 올바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 또는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남학생들은 초기 비행행동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비행친구들과 접촉하거나 비행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남학생의 경우, 비행행동을 ‘남성다움’을 표현하는 하나

의 수단(김준호, 김은경, 1995)으로 여길 수 있으므로, 교사와 부모는 남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비행 행동의 부정적 결과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학생의 비행은 일반적으로 여학생의 비행보다 관대한 처우를 받는 성차별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해나가야 하며, 일반적으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부모와의 대화하는 시간이 적으므로 학교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 3, 4, 5차에 응답한 청소년 가운데 비행행동을 한번 이상 경험해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행행동의 정도에 따른 구분을 하여 분석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비행행동의 정도에 따라 부모-자녀관계, 비공식 낙인, 비행 간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패널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측정 변수들이 비행, 부모-자녀관계, 비공식 낙인과 같은 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각 요인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조사된 변수들을 활용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부모-자녀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도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따로 구분하여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성별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 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Hoeve et al., 2012).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 또는 모와의 관계, 구체적으로 아버지-아들, 아버지-딸, 어머니-아들, 어머니-딸 간의 관계가 비행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과 부모-자녀관계, 비공식 낙인 간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구분해 봄으로써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행발생 경로를 이해하는데 이론적 함의는 물론 실제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참고문헌

- 강세현. (1995). 청소년비행의 비공식적 통제와 낙인의 효과. *한국사회학*, 29(SPR), 147-170.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청소년백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272-283.
- 기광도 (2010). 청소년 비행의 성차분석: '일반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22(2), 145-166.
- 김 경 (2010). 청소년 비행행동에 있어서 부모요인과 친구요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2(4), 1-21.
- 김경준 (2010). 사회적 스티그마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과 대응. *한국청소년연구*, 21(3), 5-31.
- 김준호, 김은경 (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형수, 최한나 (2009). 청소년의 위기 중복 유형 탐색: 서울, 인천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위기지원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21-536.
- 김혜래, 이혜원 (2007). 학교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비행과의 관계: 지위비행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3, 33-63.
- 김효수, 김성천, 유서구 (2010). 비공식낙인과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인과모형: 매개효과의 검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185-206.
- 박진희, 김현주 (2012). 청소년의 비행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차. *청소년복지연구*, 14(3), 75-96.
- 박현수, 박성훈, 정혜원 (2009). 청소년비행에 있어 낙인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1), 227-251.
- 법무부 (2010). *범죄백서*. 법무부, 법무연수원.
- 서미정, 김홍석 (2013).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과 일탈적 자아낙인의 관계: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성별 다집단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41, 161-183.
- 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신경수 (2004). 비행 청소년의 생활적응 문제에서 우울/불안 및 공격성의 합병 효과와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91-510.
- 신혜섭 (2005).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피해 중복경험에 대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12(4), 123-149.
- 안지선, 김정남 (2013).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2001년~2011년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8), 147-174.
- 이경님 (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 이경상, 안선영, 박수민, 유동훈, 반호준 (2009).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봉주, 김동일, 정익중, 유순덕 (2008). 위기청소년 개념정립 및 통계화 방안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성식 (1995). 역할담당 감정으로서의 수치심과 청소년비행: 상징적 상호작용모델의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9, 617-649.
- 이성식 (2007). 청소년비행과 비공식 낙인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18(3), 1105-1127.
- 이수진 (2004). 비행에서의 남녀차이 연구: 낙인 통제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은, 최정아 (2008).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개인 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15(1), 197-221.
- 임진섭 (2010).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2(2), 161-185.
-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 비공식낙인,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121-148.
- 여성가족부 (2012). 2012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최수형 (2008).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과정과 비공식적 낙인과의 관계: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연구*, 16(2), 145-165.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중2패널 1-6차년도 User's Guide.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인터넷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지연 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분석. *교육심리연구*, 21(1), 129-143.
- 홍세희 (2008).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 방법론" 워크샵 교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 Agnew, R. (2009). The contribution of "mainstream" theories to the explanation of female delinquency. In M. A. Zahn (Ed.), *The delinquent girl*.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Akers, R. L., & Sellers, C. S. (2004).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 (4th ed.)*, Los Angeles: Roxbury.
- Aultman, M. G., & Wellford, C. F. (1979). Towards an integrated model of delinquency causation: An empirical analysis. *Sociology & Social Research*, 63(2), 316-327.
- Bakermans Kranenburg, M. J., Van IJzendoorn, M. H., & Juffer, F. (2005). Disorganized infant attachment and preventive interventions: a review & meta-analysi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6(3), 191-216.
- Bishop, D. M. & Frazier, C. E. (1992). Gender Bias in Juvenile Justice Processing: Implications of the JJDP Act. *Criminal Law & Criminology*, 82, 1162-1186.
- Booth, J. A., Farrell, A., & Varano, S. P. (2008). Social control, serious delinquency, and risky behavior: A gendered analysis. *Crime & Delinquency*, 54, 423-456.
- Cernkovich, S. A., & Giordano, P. C. (1987).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5, 295-321.
- Bowlby, J. (1944). Forty-four juvenile thieves: their

- characters and home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25, 107-127.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New York: Basic Books.
- Coley, R. L., Votruba-Drzal, E., & Schindler, H. S. (2008). Trajectories of parenting processes and adolescent substance use: *Reciprocal effec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613-625.
- Del Giudice, M.(2009). Sex, attachment and the development of reproductive strategies. *Behavioral & Brain Sciences*, 32, 1-67.
- Griffin, K. W., Botvin, G. J., Scheier, L. M., Diaz, T., & Miller, N. L. (2000). Parenting practices as predictors of substance use, delinquency, and aggression among urban minority youth: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tructure & gender.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4(2), 174.
- Heimer, K., & Matsueda, R. (1994). Role-taking, role commitment, and delinquency: A theory of differential social contro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365-390.
- Hindelang, M. J., Hirschi, T., & Weiss, J. G. (1979). Correlates of delinquency: The illusion of discrepancy between self-report and official measur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995-1014.
- Hoeve, M., Stams, G. J. J. M., Van der Put, C. E., Dubas, J. S., Van der Laan, P. H., & Gerris, J. R. M. (2012). A meta-analysis of attachment to parents and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0, 771-785.
- Ibrahim, J. G., Lipsitz, S. R. & Chen, M. H. (1999). Missing Covariates in generalized linear models when missing data mechanism is non-ignorable.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61(1), 173-190.
- Jang, S. J., & Thornberry, T. P. (1998). Self-esteem, delinquent peers, and delinquency: A test of the self-enhancement 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586-598.
- Jensen, G., & Eve, R. (1976). Sex differences in delinquency. *Criminology*, 13, 427-448.
- Kerr, M., Stattin, H., & Burk, W. J. (2010). A reinterpretation of parental monitoring in longitudinal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1), 39-64.
- Kline, R. B. (2011). *Principles &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ew York: Guilford.
- LaGrange, Randy L., & Helen Raskin White. (1985). Age Differences in Delinquency: A Test of Theory. *Criminology*, 23, 19-45.
- Laird, R. D.,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 (2003). Change in parents' monitoring knowledge: Links with parenting, relationship quality, adolescent beliefs, and antisocial behavior. *Social Development*, 12(3), 401-419.
- Lee, S. M., & Smith-Adcock, S. (2005). A model of girls' school delinquency: School bonding & reputation.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9(1), 78-87.
- Lemert, E. (1967).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 & social control*.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Liska, A. E. & Messner, S. F. (1999). *Perspectives on Crime & Deviance*. NJ: Prentice-Hall.
- Martha, G-S. (2012). It's a two-way street: The b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41, 121-145.
- Matsueda, R. L. (1992). Reflected appraisals, parental labeling and delinquency: Specifying a symbolic integrationist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 1577-1611.
- Miller, S., Malone, P. S., & Dodge, K. A. (2010).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boys' and girls' delinquency: Sex differences & links to later adolescent outcom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 1021-1032.
- Morris, R. (1965). Attitudes toward delinquency by delinquents, non-delinquents and their friend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 249-265.
- Ray, M. C., & Downs, W. R. (1986). An empirical test of labeling theory using longitudinal data.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 Delinquency*, 23, 169-194.
- Schwartz, J., & Steffensmeier, D. (2012). Stability and change in girls' delinquency and the gender gap: Trends in violence & alcohol offending across multiple sources of evidence. In *Delinquent Girls* (pp. 3-23). New York: Springer.
- Stewart, E. A., Simons, R. L., Conger, R. D., & Scararmella, L. V. (2002). Beyond the interactional relationship between delinquency and parenting practices: The contribution of legal sanction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 Delinquency*, 39(1), 36-59.
- Svensson, R. (2003).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rug use: The impact of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deviance. *Youth & Society*, 34(3), 300-329.
- Thomas, C. W., & Bishop, D. M. (1984). The effect of formal and informal sanctions on delinquency: A longitudinal comparison of labeling & deterrence theories. *Criminology*, 75, 1222-1245.
- Triplett, R. A., & Jarjoura, G. R. (1994). Theoretical and empirical specification of a model informal labeling.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0, 241-276.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 remedies.
- 원 고 접 수 일 : 2013. 02. 03.
수정원고접수일 : 2014. 04. 02.
최종게재결정일 : 2014. 04. 05.

Gender Differences i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among Parent-Child Relationship, Informal Label and Delinquency

Eunbi Chang Hyunju Choi Gyuyoung Ha Eunhye Park Sangmin Lee

Korea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s gender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of Parent-Child Relationship, Informal Label and Delinquency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More specifically,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this study analyzed the third, fourth and fifth wave data which included 1,084 students with a delinquent history.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arent-Child Relationship had negative relationship with Delinquency, and Informal Label had positive relationship with Delinquency. Next, female students showed more Parental Attachment and Parental Monitoring, but less delinquency behavior than male students did. Lastly, there were gender difference in relationship among Parent-Child Relationship, Informal Label and Delinquency. That is, in case of female students,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reputation influenced on Delinquency. On the other hand, male students' delinquent behaviors had impact o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reput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adolescent delinquency should be gender specific. The implications of results a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Child Relationship, Informal Label, Delinquency, Gender Differenc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